

防産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 창의적 기술 개발 및 연구의욕 고취 위해 2년마다 시상



지난 11월 29일 연구개발 장려금 시상식이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있었다.

연구개발 장려금은 방산물자의 창의적인 기술 개발 촉진과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우

수한 방산물자 및 이에 관한 핵심 기술부품을 개발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1978년부터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범위내에서 79년부터 매 2년마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군사전략,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 개발,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첨단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개발,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개량 및 개발, 기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을 달성한 자들이다.

또한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및 각 군, 방산업체에서 우수한 방산물자를 연구개발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과제에 대해 공적심사 협의회에서 지급과제와 등급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엔 “K-1 전차체계 개발” 등 10개 과제에 220여명을 선정, 수상했다.

防産(수출)업체 대표 위한 리셉션 열려 ...

방위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리셉션이 12월 1일 李養鎬 국방부장관 주재로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정부측, 방산업체장 등 총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리셉션에서 李養鎬 국방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안보의 초석인 방위산업을 튼튼히 다져온 방산업체대표 및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의 집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한 방위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를 대표해 李大遠 삼성항공대표이사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영리 추구보다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기술발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진할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한국형 기본 훈련기 「雄飛」로命名

— 국내 최초 독자개발 군용훈련기로 2000년부터 양산



착수할 예정이며, 양산에 필요한 4백여명의 연구·생산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한국형 기본훈련기인 雄飛號의 독자개발로 세계 10위권의 항공산업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군 전투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雄飛號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

대우 중공업은 金泳三大통령으로부터 「雄飛」라는 휘호를 받아 지난 11월 28일 서울공항에서 국내최초로 독자개발한 군용훈련기 KTX-1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다.

정부가 지난 88년 공군에서 운용중인 초·중등훈련기 대체수요에 대비한 기본훈련기사업을 국내 독자 연구개발사업으로 결정한지 8년만에 첫 선을 보인 雄飛號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업주도하에 주계약업체인 대우중공업과 협력업체인 대한항공, 삼성항공, LG정밀 등 모두 8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했다.

9백50마력의 터보프롭엔진을 탑재한 이 훈련기는 최대속도 시속 4백81km로 비행할 수 있고, 11km이상의 고도로 상승할 수 있으며, 滯空(체공) 시간이 4시간에 이르는 등 스위스의 PC-9와 영국의 S-312 훈련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雄飛號는 고난도의 곡예조종 훈련시 필수적인 스핀회복특성이 우수하고 견고한 착륙장치와 짧은 이착륙거리로 이착륙훈련이 용이하며, 특수 탈출좌석 장착으로 비상시 조종사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였다.

최종조립업체인 대우중공업은 계속될 양산에 대비하여 1월에 총 5백여억원을 투자하여 경남 사천에 대지 4만평, 건평 8천평 규모의 공장설립에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순수 국내기술에 의한 독자개발로 항공산업 및 기술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외국 항공제작사의 단순 부품가공 및 조립하청단계에서 벗어나 설계, 조립, 시험평가에 이르는 전체 체계개발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또한 아음속 곡예급 군용기개발 핵심요소기술은 여객기 및 전투기 등의 개발에 적용가능한 공동기반기술이며, 훈련기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체계결합, 공기역학, 비행제어, 비행계측 등의 핵심기술도 향후 민수·군용항공기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국내 항공업체의 공장가동을 향상시켜주고 경영이 호전되고, 독자고유모델 항공기이므로 외국의 제약없이 수출도 가능하여 세계 군용훈련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업체의 기술력에 따라 부품국산화 확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현재 공군이 운용중인 노후화된 T-41, T-37 초·중등훈련기의 대체수요를 충당하고 조종사 증가에 따른 훈련기 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향후 근접 전투지원기로서도 운용이 가능하여 국방력 증강에 雄飛號는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